

#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천년 집사 백년 고양이3 호루스의 눈

추정경 장편소설

주제어: 판타지, 스릴러, 동물권, 생명 존중

## ※ 책 소개

죽어가는 고양이 '누룽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볼모가 되어 이집트로 향한 소년 테오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대 이집트 신화의 '카노푸스 단지'를 모티프로 설계된 네 개의 거대한 단지 안으로 들어선다. 테오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의 감정이 담긴 각각의 단지 안에 머물면서 감정을 겪되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고 나와야만 한다.

하지만 따스한 사람들과의 기쁜 추억, 거센 모래 폭풍처럼 몰아치는 분노,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뼈아픈 슬픈 기억, 즐거움과 달콤한 유혹 속에서 테오는 점차 자신을 잃고 감정의 늪에 사로잡힌다.

한편, 테오를 돕기 위해 이집트까지 온 고양이 '분홍'은 수천 년간 감춰져 온 '호루스의 눈'에 얽힌 진실을 마주한다. 쪼개어 흩어진 고양이 능력을 온전하게 모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천 년 집사'. 하지만 이 비밀이 잔혹한 인간 후보에게까지 흘러들며 고양이 세계는 위기에 처한다. 고양이들은 연쇄 킬러가 능력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회차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조각을 가장 믿을 만한 존재에게 맡기는데……. 과연 누가 마지막 조각의 주인이 되어 천 년 집사의 전설을 이어 갈 것인가?

## ※ 학습 목표

- ① 전작과의 관련성을 고려한 읽기를 통해 소설의 개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 ② 작품에 내재된 작가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 ③ 작품의 내용을 토대로 이어질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 ※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희노애락 단지 채우기
2	독서 중 활동	<b>1. 위원회의 시험</b> 1. (2권 이어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 확인하기 2. (배경지식 쌓기 + 사실적 읽기) 카노푸스 단지에 대해 알아보기 + 이집트 신화 관련 정보 파악하기 3. (감상적 읽기) 이름의 의미 알아보기 + 지향하는 삶을 반영한 호 만들기
3		<b>2. 기쁨의 단지</b> 1. (사실적 읽기 + 감상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 작품과 관련된 경험 나누기 2. (추론적 읽기) 작품에 내재된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4		<b>3. 분노의 단지</b> 1.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2. (2권 이어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 확인하기 3. (추론적 읽기)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5		<b>4. 슬픔의 단지, 시작</b> 1. (배경지식 쌓기) '꼬똥 드 툴레야' 알아보기 2. (비판적 읽기) 인물의 행동 비판하기 3. (추론적 읽기 + 감상적 읽기) 구절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 작품 내용과 관련된 경험 떠올리기
6		<b>5. 함성혁의 각성</b> 1. (2권 이어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2. (2권 이어 읽기) 전작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인물의 특징 파악하기 3. (추론적 읽기) 인물의 공통점 파악하기 + 소재의 상징성 파악하기
7		<b>6. 슬픔의 단지, 끝</b> 1.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추측하기 3. (창의적 읽기 + 감상적 읽기) 타 장르와 연계하여 소재의 상징성 파악하기 + 작품 내용과 관련된 경험 나누기
8		<b>7. 분홍의 분홍팬클럽 ~ 8. 즐거움의 단지</b> 1. (사실적 읽기) 작품 내용 파악하기 2. (2권 이어 읽기 + 배경지식 쌓기) 전작과의 연관성 확인하기+ 호루스의 눈 알아보기 3. (추론적 읽기) 인물의 행위에 담긴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9		독서 후 활동

## ■ 작품과 관련된 배경지식 탐구하기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쁨 때도 있고, 화가 나거나 슬플 때도 있지요. 이 책에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을 담은 네 개의 특별한 단지가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독서를 하기 전, 내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담겨 있는지 먼저 들여다봅시다.

1. 각 감정에 어울리는 색깔을 고려하여 아래의 단지를 색칠해 봅시다.



2. 각각의 감정에 관한 기억을 떠올려 본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기쁨(喜)의 단자: 최근 나를 가장 웃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분노(怒)의 단자: 요즘 나를 가장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슬픔(哀)의 단자: 마음이 울컥하거나 속상해서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나요?

즐거움(樂)의 단자: 아무 생각 없이 몰입해서 즐겁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3.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우리 삶에서 슬픔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 참고 영상: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여 주는 '슬픔'의 중요성  
<https://www.youtube.com/watch?v=HbUcaWgjhtg>

**[지도 tip]** 3권의 핵심 메시지인 '감정의 공존'을 미리 맛보는 단계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분노와 슬픔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감정임을 인지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1. (2권 이어 읽기)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읽고 3권에서 테오가 이집트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기>

“좋다, 인간.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단, 이 출혈의 대가로 누구든 하나를 볼모로 데려가야 하고 그는 가장 높은 회차여야 한다.”

“볼모를 데려가다니! 볼모는 전쟁에서 이긴 쪽이 데려가는 거잖아. 너희는 졌다고!”

“너희 역사는 어떤지 모르지만 고양이 세계는 달라. 진 쪽이 그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이긴 쪽의 사람을 모셔 가는 거야. 너희 인간이 우리가 만든 볼모라는 뜻을 잘못 배껴 쓴 거야.”

“하, 말도 안 돼…….”

“그리고 그건 고양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어. 네가 저 샷의 앞길을 막는다면 회차가 낮더라도 널 데려갈 수밖에.”

“뭐? 누굴 데려가겠다는 거야!”

“차라리 천 년 집사가 될지도 모르는 인간을 데려가는 쪽이 안전하겠군.”

“그럼 그 자식을 데려가라고! 그 사이코 살인마가 누구인지 너네는 알 거 아냐! 그놈을 데려가서 볼모를 하든 수모를 겪게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볼모는 희생정신이 있는 자만 가능해. 네 말대로 그 사이코패스에게 희생정신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

당혹스러운 말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죽은 누룽지의 몸을 안고 있던 테오가 말했다.

“그럼 제가 갈래요.”

“테오 너 미쳤어?”

“형, 제가 갈래요. 삭정이랑 저 둘 다 6회차인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높은 회차라면 저도 되고 어차피 누군가 한 사람이 가야 한다면 어린 제가 낫겠죠. 그리고.”

테오는 누구도 들을 수 없게 조용히 고딕의 귀에만 들리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 지금 누룽지의 생명이 꺼지기 전에 제 안에 가둬 두었어요. 내가 생명의 그릇이 된다는 건 깨달았지만 이 가둔 생명을 어떻게 꺼내는지 몰라요. 아마 저들이라면 방법을 알겠죠. 누룽지와 함께 저들을 따라가겠어요.”

“널 볼모로 보낼 수 없어! 저들은 그저 천 년 집사가 될 위험 요소 하나를 데려다 가둘 생각인 거야.”

“다음 회차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요? 누룽지를 살릴 수 있다면요?”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2》중에서

---



---



---



---

## 2.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2-1. (배경지식 쌓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카노푸스의 단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봅시다.

- ▶ 참고 영상: 죽은 자의 장기를 보관하는 '카노푸스 단지'

[https://www.youtube.com/watch?v=SIJMpOHIVg&list=PLj8fL2Alo-bF--D95uJ\\_DM6LkTILBjb\\_&index=7](https://www.youtube.com/watch?v=SIJMpOHIVg&list=PLj8fL2Alo-bF--D95uJ_DM6LkTILBjb_&index=7)

### 2-2. (사실적 이해)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 봅시다.

호루스(Horus)의 네 아들	머리 모양	보호하는 장기
임세티(Imsety)	사람	간
두아무테프(Duamutef)		
	개코원숭이	
		장

## 3. (감상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즐거울 락(樂).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국 이름인 '행락'에 들어간 글자였다.

한국 사람들은 배울 학, 어질 인, 복덕 덕, 높을 준과 같이 미래에 누리길 바라는 이상을 이름에 쓴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닐 행에 즐거울 락을 쓰는 특이한 이름을 가졌다. 행락, 말 그대로 유유자적하며 즐거움을 따라 돌아다니는 삶.

인간의 생은 자신의 이름을 따라간다는 미신이 있다고 하던데, 아버지의 떠돌던 삶 어딘가에도 그 이름이 주는 즐거움이 있었을까. 테오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 3-1. 여러분의 이름이 지닌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이름	의미

3-2. 여러분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정리하고 그것을 반영한 ‘호’를 만들어 봅시다.

호: 사람이 본이름이나 자(字) 외에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호칭.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예시					
지향하는 삶의 태도	즐거움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삶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반영한 한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 font-size: 2em;">行</td> <td style="width: 50%; font-size: 2em;">樂</td> </tr> <tr> <td>다닐 행</td> <td>즐거울 락</td> </tr> </table>	行	樂	다닐 행	즐거울 락
行	樂				
다닐 행	즐거울 락				
호의 의미	즐거움을 찾아 다닌다.				

지향하는 삶의 태도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반영한 한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 font-size: 2em;">뜻: 음:</td> <td style="width: 50%; font-size: 2em;">뜻: 음:</td> </tr> </table>	뜻: 음:	뜻: 음:
뜻: 음:	뜻: 음:		
호의 의미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1. (사실적 읽기) 본문을 참고하여 테오가 기쁨을 느끼는 네 개의 장소와 각각의 장소와 관련된 인물을 정리해 봅시다.

“딱 네 개의 장소, 네 번의 기쁨이야.”

“계속 이 안을 헤매고 있었던 거네.”

“정확히 말하면 갇혔던 거지. 고작 네 개의 기쁨에. 그래서 네 단지가 부실해 금이 갔던 거고.”

1-2. (감상적 읽기) 여러분이 기쁨을 느끼는 장소는 어디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 2.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2-1. 분홍의 말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메시지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네가 좀 더 나이가 있었다면 더 많은 기쁨이 있었을 거고 그 순간을 헤맸을 거야. 넌 갇혔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거고. 오히려 나이가 어려서, 기쁨이라 할 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차린 거야.”

그 말은 테오를 씩씩하게 만들었다. 떠올릴 기쁨이 많았다면 갇혔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시간을 무한 반복하고 있었을 거란 의미인데, 부럽게 들리기까지 했다.

“근데 아무리 많은 기쁨이라도 같은 순간만 사는 게 기쁜 일이나? 같은 계절, 같은 음식만 경험하고 사는 게 기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기쁨이 무더지고 금이 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걸 되풀이하는 건 한 계절만 되풀이하고 사는 거랑 같겠구나.”

“그러니까 윤테오, 정신 차려! 한 순간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2-1. 티그리스의 말을 토대로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추측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너를 만났던 건 처음부터 가장 큰 기쁨이고 행운이었어. 하지만 그것이 슬픔이 되기 전에 네 스스로 이 순간을 깨고 나가길 바라.’

‘미안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아마 곧 일어날 일 때문에 이 순간을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봐.’  
‘불행의 한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찾아들기도 해.’

〈중략〉

‘이곳은 온전히 기쁨의 영역이야. 네가 문을 잠그지 않아도 이곳으로 슬픔이 스며들지는 않아. 향아리가 그들을 나눠 두었지. 하지만 계속 머문다고 해도 절대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흘려보내. 그때의 나처럼.’

‘티그리스…….’

‘네가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그 행복을 하나의 향아리에서 찾지 마. 각각의 감정이 나눠진 향아리가 아니라 모든 감정, 모든 것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너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고양이들 속에서 그들의 온기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 네가 더 강해진 뒤 백 년 고양이를 찾아가.’

**3.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1. 테오에게 ‘까방권’을 요구하는 분홍을 고려하여 이어질 내용을 추측해 봅시다.**

“대신 ‘까방권’ 하나만 얻자.”

“까방권이 뭐야?”

“까임 방지권이란 아름다운 우리 말이 있어. 나중에 내가 그 어딘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날 용서해 주는 거지. 아무튼 줄 거야, 안 줄 거야?”

“분홍이 네가 저질러 봤자 유리컵 깨거나 다른 고양이 두들겨 패는 일일 텐데, 거창하게 까방권이 왜 필요해?”

“……나는 필요 없는데 인간의 생애는 아니더라고. 네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너한테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3-2. 누하가 어떻게 고양이 수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지 추측해 봅시다.

“이봐, 누하! 누가 너에게 고양이 수염을 준 거야?”

“.....”

〈중략〉

“누하! 내 말 다 알아듣는 거 아니까 대답해.”

누하가 잠시 분홍을 바라봤다. 자신의 몸 가장 깊숙한 곳에 간직하고 있는 고양이 수염을 단번에 알아본 저 고양이의 능력이 놀라웠다. 그러나 그 수염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지켜야 할 비밀이기에 누하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 1. (사실적 읽기) 다음 괄호를 채워 봅시다.

**[문제1]**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있기에 이렇게 큰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정말 별생각 없이 살아온 것 같은데.”

→ 모래 폭풍의 원인은 테오가 아닌 ( )의 분노였다.

**[문제2]** 누하가 침묵하자 분홍이 말했다.

“두 개의 빛은 아누비스와 보마니군. 누하 너는 이곳에 비밀의 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 비밀의 문의 정체는 ( )이다.

**[문제3]** “테오는 깨고 나는 답아야 하는데 답이 없네.”

그런 말을 하는 와중에 분홍을 잡기 위해 달려드는 도적단이 귀찮을 따름이었다.

→ 테오는 ( )을/를 깨야 하고 분홍은 ( )을/를 답아야 한다.

## 2. (2권 이어 읽기)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에게 죽음과도 같은 구원을 선물한 이는 영혼의 수호자를 뜻하는 ‘아누비스’였고, 길을 동행한 이는 전사라는 뜻의 ‘보마니’였다. 아누비스는 보마니를 능가하는 근원적 힘을 가진 존재였으며, 보마니는 그를 보호하는 무적의 전사였다. 이 둘을 쫓는 것은 위원회가 보낸 그림자들로, 아누비스와 보마니를 막아 다시 이집트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아누비스와 보마니는 위원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스스로 한국행을 택한 것이었다.

〈중략〉

할멈은 그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고 있었다.

고대의 예언은 두 번의 천 년이 지나고 나올 천 년 집사가 흑마력의 마수일 것이라 말했다. 라의 전사들의 목적은 이미 어둠에 물든, 혹은 앞으로 물들 천 년 집사를 차단하는 것이다. 위원회와 라의 전사들은 불행의 씨앗이 움틀 때마다 그 씨앗을 뿌리째 뽑아 왔다. 그렇게 오랫동안 굳게 봉인되었던 천 년 집사의 수레바퀴였건만, 누군가에 의해 봉인이 풀렸고 그 바늘 위에 세 사람이 올라서게 되었다.

이고덕, 윤테오, 그리고 또 한 사람.

〈중략〉

그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다르다고 말했던 것은 그 목적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고덕과 테오를 찾아온 것은 고덕과 테오의 능력치를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으며 또한 천 년 집사가 되는 비밀을 알려 주기 위해서였다.

천 년 집사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위원회의 결정을 어기면서까지 이곳으로 와 고덕과 테오를 각성하게 해 준 것이다. 또한 나머지 한 사람, 살인마를 찾아간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천 년 집사를 죽일 수는 없으나 그의 시간을 멈추고 고덕과 테오의 시간을 벌여 준 것, 의도적으로 천 년 집사의 레이스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위원회의 반대를 불러왔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2》중에서

**2-1. 아누비스와 보마니가 반기를 들었던 위원회의 결정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봅시다.**

**2-2. 아누비스와 보마니가 위원회의 결정에 반기를 든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3. (추론적 읽기) ㉠~㉡이 무엇인지 추측해 봅시다.**

그 말에 테오는 울고 있는 누하와 오마르를 끌어 물의 입구로 밀었다. 그들이 입구를 빠져 나가자 테오도 뒤를 따랐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분홍은 잠시 벽의 부조를 바라봤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섬광이 번쩍였고 그는 잠시 멈췄다. ㉠봉인된 능력이지만 머지않은 미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미래의 분홍은 바위 위에 서서 ㉡누군가와 이별하고 있었다. 울고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이 조금 전 누하, 오마르와 닮아 있었다. 그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 1. (배경지식 쌓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꼬똥 드 틀레아'에 대해 알아보시다.

“꼬똥 드 틀레아네요. 귀한 강아지를 키우시네요.”

“맞아, 꼬똥. 보통 사람들은 똥똥한 말티즈라고 착각하는데 역시 동물병원 원장은 다르네.”

▶ 참고 영상: 폭신♥ 손이 털 속에 숨어버림 | 견종백과 꼬똥 드 틀레아편

[https://www.youtube.com/watch?v=Gg2WQKSb1QY&list=PLj8fL2Alo—bF—D95uJ\\_DM6LkTILBjb\\_](https://www.youtube.com/watch?v=Gg2WQKSb1QY&list=PLj8fL2Alo—bF—D95uJ_DM6LkTILBjb_)

## 2. (비판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2-1. 다음을 읽고 정숙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각 장면별로 정리해 봅시다.

## [ 장면1 ]

가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새끼 분양을 비싸게 하는 데만 혈안이 된 보호자들을 만날 때가 있다. 특히나 이렇게 비싼 견종은 시간이 갈수록 견종이 대중화되면서 새끼 분양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쉽 없이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주인이 있는 가정견도 자본의 논리 앞에서 예외가 없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수의사인 연주는 그들을 대할 때에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다.

“자궁에 염증 고름이 쌓인 거라 더 악화되면 자궁을 들어내야 해요. 지금 임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새끼 두 번 출산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던 애였는데 갑자기 자궁을 들어내라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복막염이나 패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생명도 위험해요.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해 보고 만약 심하다면 자궁이랑 난소를 떼어 내는 게 최선이에요.”

“초음파 한번 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니? 애, 너 뭘 알고 하는 소리야?”

## [ 장면2 ]

“그럼 검사부터 하고 결과 보고 결정하세요. 이견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애, 너 괜히 돈 벌려고 멀쩡한 애 수술 시키려는 거면 나 실망이야. 어렵게 찾아왔더니 보자마자 수술하자는 소리부터 하고, 너 아는 사람한테 이러면 천벌받는다!”

배를 묶는 밧줄처럼 질기고도 튼튼했던 자신의 인내심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었다. 이성을 상실한 보호자를 상대하는 일에 점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금똥이 다니는 동물병원 있죠? 거기선 뭐라고 그래요?”

“…….”

“아이 상태가 이런데 병원을 안 다니셨을 리는 없고 다른 병원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침묵이 곧 답이 되었다.

**[ 장면3 ]**

“애, 내가 돈이 없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아니야. 나도 내 딸 같은 금똥이 데리고 새끼 팔아 돈 벌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런데 사는 게 생각처럼 되니? 당장 먹을 쌀도, 애 먹일 사료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었겠어?”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하셨어야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아는 사람 찾아오셨으면 괜한 허세 부리지 말고, 그런 말을 하셨어야죠.”

“있는 척만 하고 살아서 없어 보이는 걸 못 해, 내가!”

“딸 같은 애라면서요. 그 딸이 죽게 생겼는데 말 한마디가 문제예요? 수술받게 하세요.”

연주의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다.

**[ 장면4 ]**

“아니야. 개가 사연이 좀 있었어. 사업 힘들어지고 집안 풍비박산 나고 애들은 빨빨이 흩어지고, 암튼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해서 우리가 찾고 있어.”

“뭐?”

“사업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건어서 봉투를 줬는데 그것도 마다하더니 어느 날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고, 저 혼자 개 한 마리 데리고 어디 원룸 하나 얻어 산다는데, 그 개를 데리고 널 찾아간 모양이다.”

[장면1]을 보고 든 정숙에 대한 생각:



[장면2]을 보고 든 정숙에 대한 생각:



[장면3]을 보고 든 정숙에 대한 생각:



[장면4]을 보고 든 정숙에 대한 생각:

2-2. 다음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정리한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아, 모르겠어. 빌런은 그냥 빌런 노릇만 하라고 해. 이 사연, 저 사연 다 들어주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어 났어.”  
“……엄마가 보기엔 자기도 벼랑에 몰려서 살려 달라고 손을 내민 것 같다. 모른 척 잡아 주지 그랬어.”

[입장1] 정숙을 대하는 연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

---

---

[입장2] 정숙을 대하는 연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

---

---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고덕은 금뚱이 자신의 주인과 함께 여생을 조금 덜 힘들게, 짙어진 슬픔의 절반만이라도 내려놓고 살아가길 바랐다.  
장대비가 쏟아진다고 한들, 그 비를 피할 처마와 함께할 이가 있다면 그 순간이 완전한 불행이 아님을 분홍이 알려 주었다.  
그때 고덕이 되물었다.  
‘완전한 불행이 아니란 건 뭐야?’  
‘그냥 아주 짙은 어둠은 아니라는 거지. 조금 숨을 돌릴 순간이나 그 순간을 함께할 이가 있다면.’  
‘비가 쏟아지는데도?’  
‘비가 쏟아져도.’  
‘고작 처마 밑에서?’  
‘깊이는 세 뼘 정도면 돼.’  
‘그걸로 비만 피하고 있으라니…….’  
‘비는 언젠가 그치니까. 쏟아지는 불행을 비처럼 관조하고 있으면 되지. 와, 내 인생에 불행이 저렇게 쏟아지는구나. 마치 남 일처럼. 근데 난 세 뼘짜리 처마에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저 비도 언젠가는 그칠 거고 여기서 피붓는 비 구경이나 하자. 그냥 그 마음으로 살아. ㉠어차피 인생은 원효대사의 해골 물과 같은 거니까.’

3-1. (추론적 읽기) 괄호를 채워 밑줄 친 ㉠의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어차피 인생은 원효대사의 해골 물과 같은 거니까.



어차피 인생은 ( ) 거니까.

3-2. (감상적 읽기) 여러분과 함께 비를 피할 ‘처마’와 ‘함께할 이’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 1. (2권 이어 읽기) (가)와 (나)에서 알 수 있는 합성혁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가) “선생님, 512호 합성혁 환자, 어찌다가 교통사고가 난 건가요?”

“아,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갑자기 달려든 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났대요. 그 고양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그 말에 고덕의 생각 회로가 얼어붙었다. 분명 합성혁을 찾아올 때는 노교수의 죽음에 대해 질문할 것들이 있었는데 ‘고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다. 합성혁의 교통사고에 고양이가 개입했다는 것은 곧 고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합성혁 앞으로 달려든 고양이는 누구일까.

〈중략〉

도망가는 오토바이와 쫓아오는 고양이 두 마리. 합성혁은 온 힘을 다해 도망치고 있었는데 그를 쫓는 고양이 들은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바짝 쫓았다. 날아오르듯 튀어 오른 고양이 한 마리가 반짝이는 무언가를 꺼내 공기를 가르느 순간, 굉음과 함께 합성혁이 쓰러졌다.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그를 바라보는 두 마리의 고양이 눈에 냉한 살기가 돌았다.

(나) 살인마는 새끼 고양이의 생명 반쪽을 넘겨받았다. 그는 고양이의 언어를 받지 못했지만 그의 신체적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틀림없었다.

이로써 그도 천 년 집사가 될 수 있는 계단에 올라와 있는 셈이었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2》중에서

(가)	
(나)	

## 2. (2권 이어 읽기) (가)~(다)에서 알 수 있는 위진호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가) 카메라 각도를 돌리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돌아서는 위진호의 본모습을 본 순간, 연주는 자신이 뽑은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인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

고덕은 테오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 물었다.

“넌 어디까지 알고 있었어?”

“평소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정작 고양이들은 이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서 의심했죠. 그 사람이 없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엑스레이 찍을 때 입을 막고 이상한 짓을 했었대요.”

“이상한 짓?”

“탈구를 시킨다든가, 칼끝으로 살을 긁는다든가. 애들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저 남자 인간을 이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해 달라고, 자기를 지켜 달라고. 근데 좀 헛갈려요. 언뜻 봐서는 고양이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는 동물을 장난감으로 대하거든요.”

(나) “위진호 씨, 고양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고양이요?”

“당신은 애니멀 호더잖아. 당신이 장난감처럼 모아서 확대하고 버렸던 그 수많은 고양이, 설마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나머지 고양이들 어디 있어?”

“내가 미쳤다고 그것들을 사는 집에 들일까. 난 집에 고양이 털 날리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라.”

위진호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자 고덕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한 말은 고덕이 위진호를 얼마나 잘못 짚었는지 알려 주는 말이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애니멀 호더가 아니었다. 그에게 고양이란 그저 가학의 대상일 뿐, 모으는 걸 즐기는 차원이 아닌 실험 대상으로서의 존재였다. 그렇기에 자신의 공간과 분리된 곳에서 동물들을 확대하고 즐겼던 것이었다.

단 하나 다행인 것은 살아 있는 진짜 고양이가 없어도 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많은 외장하드에는 위진호가 좋아하는 고양이 영상이 가득했다는 점이다. 그는 개와 고양이의 관절을 탈구시키는 걸 즐겼는데 주로 뒷다리를 못 쓰게 만들어 방바닥을 기어다니는 걸 관찰하며 재미있어했다. 토치 불에 털을 태우다 못해 살을 태우는 장면은 차마 맨정신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살점을 떼어 내기 시작한 영상이 가장 최근의 것임에 안도해야 했다. 어쩌면 그는 가학의 대상을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시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첫 대상이 정 선생이 될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다) “꽤 오래 버티고 있네요. 아니, 하도 많이 쫓겨나서 이번에는 가면을 잘 쓰고 지내나 봅니다. 사실 위진호 씨 경력을 묻는 전화를 처음 받은 게 아닙니다. 옮긴 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오더군요. 그때마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내보내시라고.”

전화를 끊고 연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자기 잘못인 것만 같아 죄책감에 휩싸였다. 너무나 안일하게 사람을 품으려고만 했다. 최소한 그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는 가릴 눈이 있어야 했는데 연주는 악을 끌어안고 있었던 셈이었다.

들이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자신의 율타리 안에 들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

〈중략〉

그 한 시간 30분짜리 영상에는 탕비실을 드나드는 수많은 직원의 모습이 담겼다. 위진호는 딱 한 번 탕비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머니에서 니코틴 원액이 든 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음료를 만들듯 정 선생의 텀블러에 그 원액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뚜껑을 닫아 흔들었다. 그리고 음료를 만

들 듯 정 선생의 텀블러에 그 원액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뚜껑을 닫아 흔들었다. 니코틴 원액의 향이 올라오는지 뚜껑을 열어 향을 맡아 보는 철저한 모습도 보였다. 뭐가 그리 흡족한지 고개를 끄덕이며 텀블러를 그 자리에 둔 위진호는 탕비실을 나가기 전 거울에 비친 자기 머리를 매만지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2》중에서

(가)	
(나)	
(다)	

### 3.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3-1.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함성혁과 위진호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

(가) 한바탕 소동으로 평소보다 더 빨리 연구실 문을 닫고 모두가 돌아간 그 밤, 함 검시관이 다시 부검실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이 교수가 황망한 중에 놓고 간 출입 카드가 들려 있었다.

오늘 오후에 들어와 미처 확인하지 못한 3번 칸에 여성 시체가 있었다. 함 검시관은 그 시체를 꺼내 옮겼다. 목 주변에 손가락 끝으로 누른 듯한 흔적이 있었다. 질개해 보면 근처 근육 출혈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의 사인은 손으로 목을 조른 질식사라 판명될 사건이었다. 그는 물끄러미 여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략〉

“이 시체와도 안면이 있나?”

“…….”

“나도 가끔 좋아하는 영화는 영화관에서 본 뒤 VOD로 풀릴 때 다시 보기를 한다네. 자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짐작하고 있었고, 부검의가 사인을 밝혀내도 범인을 찾을 수 없으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식으로 살해되었는지 제삼자의 입을 통해 브리핑을 듣는 기분. 자기 작품을 분석해주는 비평가의 목소리를 지척에서 듣는 자리였을 테지.”

노쇠한 이 교수의 눈이 날카로운 이 검시관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 빨테 안경 너머 감춰진 야수의 눈을 그는 꿰뚫어 보았다.

“……교수님, 언제부터 절 의심하고 있었죠?” 〈중략〉 함성혁은 어이가 없는 듯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부검의는 그 웃음의 진의를 알 수 없었다.

“무슨 죄목으로? 모든 사건의 범인이 나라고?”

“내가 자넬 위해 증언하겠네.”

부검의가 그를 바라본 그 순간, 그는 자기 목에 주삿바늘이 꽂혔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 모든 대화를 주도면밀하게 끌어온 것은 부검의가 아니라 검시관이었다.

“자네…….”

“이제 와 아무 힘도 없을 진실을 말하자면, 살인자는 제가 아닙니다. 제 동생이 될 겁니다. 그게 제 동생이 짝 어질 굴레거든요.”

“그럼…….”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2》중에서

(나) “……사실 형이 죽고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부모님은 형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하지 않는 거고.”

“농담인데 그렇게 진심인 척 받아치면 서운하지. 그나저나 조금만 굽혀도 이렇게 정색하면 인정하는 꼴이 돼. 너 때문에 형이 죽었다고.”

그 말에 위진호가 발작적으로 격분하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살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깐.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그래,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

그 순간 함성혁은 위진호의 눈에 얼비친 수많은 사진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장,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짧게 스치고 지나갔지만 강렬하게 그 현장을 보여 주었다. 비소 가루, 커피, 구토와 오심, 이유도 모른 채 죽어 가던 위진호의 형, 임종, 부모님과 함께 다시 찍은 세 사람만의 가족사진, 마침내 3대 독자, 이 모든 것이 스쳐 가는 사진 속에 있었다.

〈중략〉

“그때 어떻게 나를 한 번에 알아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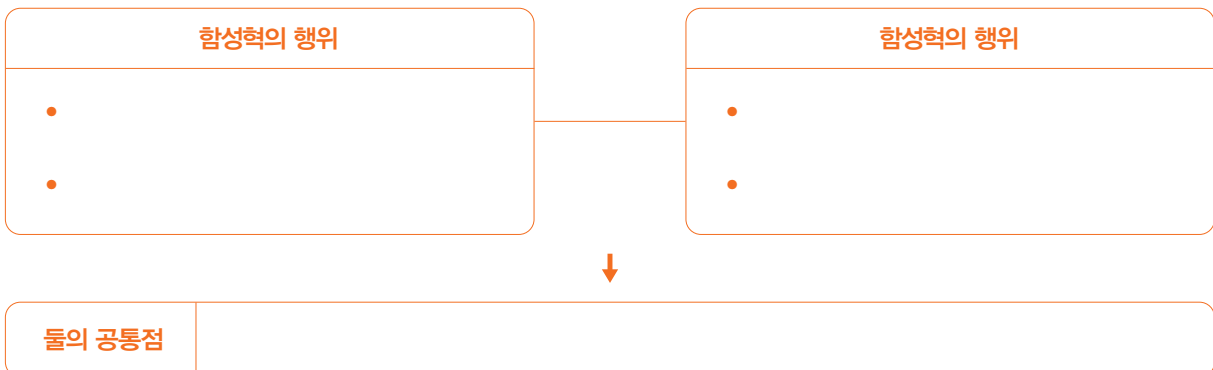
그 말에 함성혁이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네 사건 현장은 마치 전시장 같았어. 자기 작품을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 둔. 그런 마음을 가진 범인이라면 사람들이 자기 작품을 바라보며 보이는 광경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자 하지. 단,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잡힐 위험도 없는 곳에서.”

상가 건물로 밀집된 거리에서 실외기 사이에 널브러져 있던 시체를 보자 함성혁은 대번에 범인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훼손되지 않고 전시되는 공간에서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라면.

출동해서 현장을 둘러보던 그는 자연스레 빌딩의 꼭대기를 올려다보았다. 통제된 현장을 잘 내려다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위진호가 있었다.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는 몇몇 사람들 가운데 히죽 웃는 단 한 사람의 눈과 마주친 순간 생각했다.

그래, 너구나.



3-2.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거미’와 ‘개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수백 마리의 개미에게 잠식당해 죽어 가는 바로 그 순간 함성혁은 위진호의 눈빛을 보았다. 그의 손은 다음 칸막이에 머물러 있었다.  
 함성혁은 위진호가 묻고자 하는 진짜 질문을 눈치챘다.  
 나를 당신의 영역에 넣을 것인가.  
 포위당해 죽어 가는 거미를 구해 줄 거미가 필요한 순간이 기필코 찾아올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함성혁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자 위진호는 마지막 칸막이를 열었다.

‘거미’가 상징하는 것	
‘개미’가 상징하는 것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 3-1. (창의적 읽기) 다음 영상의 노래 가사를 살펴보고 <보기>의 '구두'와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

- ▶ 참고 영상: 아이유\_분홍신 (The Red Shoes by IU@Mcountdown 2013.10.10.)  
[https://www.youtube.com/watch?v=M8xFLfxvV6Q&list=RDM8xFLfxvV6Q&start\\_radio=1](https://www.youtube.com/watch?v=M8xFLfxvV6Q&list=RDM8xFLfxvV6Q&start_radio=1)

#### <보기>

“자, 신어 보렴.”

“정말 제 거예요?”

“애초에 네 가죽이었어. 네가 가지고 온 최고급 낙타 가죽으로 만든 최고급 수제화는 당연히 네 것이지. 좋은 구두는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는 말, 알고 있니?”

#### 3-2. (감상적 읽기) <보기>를 참고하여 만약 분홍신(혹은 구두)을 선물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 <보기>

<분홍신>의 가사 중에서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고르지”라는 부분은 아이유에게 보내는 최선의 응원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아이유도 가사를 보고 작가님의 마음을 눈치챘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너에 대한 내 생각을 담아서 이런 가사를 썼다’고요. 그런데 아이유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들뜨거나 하지 않아요. 항상 담담하고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아이유는 “타고난 그릇이 정말 큰 아이”라고 적은 거고요.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저보다 훨씬 그릇이 큰 아이라는 걸 매번 느껴요.

\* 출처 : 채널예스(<https://ch.yes24.com/Article/Details/27565>)

###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를 채워 분홍의 팬클럽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분홍 팬클럽]

- 이름: ○○ ○○
- 회장: ○○
- 즐겨하는 놀이: ○○○○ 코스프레
- 유행어: 내 ○○를 죽인 ○○다.

2.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2-1. (2권 이어 읽기)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호루스의 눈에 관해서 알아보시다.

“우리는 ‘호루스의 눈’을 이용했어. 그게 위원회가 우리를 그토록 반대했던 진짜 이유야.”  
 “그래, 당신들이 우리 땅을 떠날 때 그 말을 남겼었지.”  
 “그것은 ‘라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태양의 눈’이라고 하기도 해.”

#### <보기>

“기다려! 넌 아직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 남은 자, 그자는 어떻게 됐나?”  
 보마니는 다친 발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다른 발로 막으며 말했다.  
 “한동안은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신탁을 깰 수 없었어. 다만 호루스의 눈에서 그 조각을 가져왔지.”  
 “그를 찾아갔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군.”  
 호루스의 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해도 그가 뱀은 말은 어둠 속을 헤매던 자신에게 등불이 되어 주었다. 신탁을 깨지 못하기에 살인마를 죽일 수 없었다면 애초에 고덕과 테오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의미였다.

#### <중략>

분홍은 보마니가 계울을 어기고 주는 대답이 보은의 의미임을 알았다. 계울을 어긴 그를 기다리는 것은 위원회의 가혹한 형벌일 것이다.  
 “호루스의 눈이 조각조각 나 흩어지게 하면 돼. 목적지에 제일 먼저 도착한다고 해도 결국 빠져 버린 그 하나의 조각 때문에 온전한 승리를 움켜질 수 없게 돼.”

—《천 년 집사 백 년 고양이 2》중에서

2-2. (배경지식 쌓기)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호루스의 눈'에 관해 알아보시다.

- ▶ 참고 영상: 분수의 덧셈과 뺄셈 - 호루스의 눈과 분수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aVAit2a9OC\\_U&t=5s](https://www.youtube.com/watch?v=aVAit2a9OC_U&t=5s)

3. (추론적 읽기) 영상을 참고하여 테오가 즐거움의 단지에 빠져 허우적대는 장면이 상징하는 바를 추측해 봅시다.

“분홍아, 도와줘!”  
 “정신을 차리게 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나머지는 네 몫이야.”  
 “미안해. 하지만 이 우박을 뚫고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한번 시작된 우박은 멈추지 않아. 넌 이 쾌락에 빠져 일주일을 다 썼고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질 거야.”  
 “하지만…….”  
 “진짜 어른이 되고 싶으면 네 행동에 책임져.”

테오는 퍼붓는 우박과 고통 속에 시름하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이 불러온 나비 효과였다. 포탄 같은 파괴력을 지닌 우박을 맞은 이들은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바다에서 몸부림쳤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나간 이들조차 몇 걸음 못가 바닥에 쓰러졌다.

광장의 모든 것이 망가진 가운데 유독 깨지지 않은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항아리를 본 순간 머릿속에 천둥이 쳤다. 테오는 이 축제의 광장이 자신을 시험하는 네 번째 항아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 ▶ 참고 영상: '숯폼' 영상에 빠지면 도파민 중독? 뇌의 빈틈 파고든다 / SBS  
<https://www.youtube.com/watch?v=h2UwrxQqjN0>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본문에서 제시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의 단지 외에 다른 감정을 담은 단지를 설계해 봅시다.

### 1. 단지에 담은 감정은 무엇인가요?

( )의 단지

### 2. 단지의 모양을 묘사하고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hr/> <hr/> <hr/> <hr/> <hr/> <hr/> <hr/>	<p>( )의 단지</p>
---	----------------

### 3. 단지에 들어갈 기억을 생각해 봅시다.

### 4. 친구들과 각자 설계한 단지를 소개하고 의견을 나눠 봅시다.

설계자	단지 이름	단지의 특징	느낀 점
	( )의 단지		
	( )의 단지		
	( )의 단지		
	( )의 단지		